



365일 도민 곁에 ‘돌봄 전북’ 실현

전북사회서비스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광역 전담 체계 정립

농촌 맞춤형 복지 확대·복지 일자리 창출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365 함께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과 도서 등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복지, AI 기반 모니터링, 위기 청년 밀착지원, 사회서비스 산업 확산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광역 전담기관 체계 정립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북사회서비스원은 광역 단위 통합 돌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조정 △통합돌봄계획 모니터링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올 10월 ‘365 함께 돌봄 민관협력추진단’을 출범시킨다. 60명 규모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지역 중심, 주민주도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확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형 돌봄 운영체계 마련에 나선다.

▲현장에서 더 가까이… 농촌 맞춤형 복지 확대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이동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건강·상담·문화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복지 모델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읍·장수·임실·군산·순창 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화차당 평균 84명이 참여했으며, 의료기관·복지관·자원봉사센터 등 30개 민관 협력 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품질도 높였다.

또한, ‘찾아가는 돌봄 상담창구’를 운영해 복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124명에게 긴급 돌봄 연계,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민관지원 연계 등의 현장 상담을 제공했다.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전북인 복지 플랫폼(1522-0365)’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통합상담체계도 구축했다.

▲AI 기술 접목, 고립·고독사 예방

전북사회서비스원은 2023년부터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AI 음성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고립 위험군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는 주 1회 1,727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진행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기관과 함께 고독사 예방 교육과 포럼을 운영하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이 같은 AI 기반 돌봄 체계는 정서적 지원을 넘어, 응급 대응·지역 네트워크 형성·사회안전망 강화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위기 청년 발굴·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강화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과제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신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으

로 ‘청년 미래센터’를 운영하며 가족 돌봄·고립·은둔 청년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성과만 봐도 △가족돌봄청년 64명에게 자기돌봄비 1억 2,800만원 지원 △심리상담·의료·생활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206건 △고립·은둔 청년 대상 집단상담·가족교육 78회 운영 △공동생활형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5명 중 3명 취업, 2명 구직 연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장학금·이사비 등 긴급지원 89건(총 4,200만원)을 집행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재무상담, 사회복지관협화와 간담회 등 민관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복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에는 68개 기관과 2,500명의 도민이 참여해 AI 상담시스템, 고령친화기술 등 11종 이상의 복지기술을 체험했다.

오는 10월 22~23일 개최되는 제2회 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박람회는 전북형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

전북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생애 주기별 맞춤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디지털 기반 복지체계 확장 등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광역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업무 협약식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권 전북개발공사 사장, 심민 임실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 자녀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 전액 면제

전북형 반할주택 본격 추진

(반할 수 밖에 없는 주택)

도, 남원시·장수군·임실군·전개공과 협약 체결

인구 감소 등 대응 위해 협력체계 구축·역할 분담

청년 주거 안정 도모… 다자녀 우대 정책과 차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에 본격 나선다.

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및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대권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할주택’은 각종 혜택으로 ‘반할 수 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전곡 최초로 ‘한 자녀’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기존의 다자녀 우대 정책과 차별화를 꾀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남원(부지 8,661㎡, 장수(8,200㎡), 임실(9,299㎡) 지역에 2029년까지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공급한다. 2단계 사업으로 2031년까지 200세대를 추가 공급해 총 500세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원 규모로, 단 지당 약 32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자치도가 전체 예산의 75%를 담당하고, 시·군은 단계적으로 80억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할주택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은 지역,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부를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정책과 삶의 변화로 다가가는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 “코스트코 입점

상생·균형이 원칙”

익산시가 코스트코 입점 과정은 지역경제와 시민 이익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19일 “반반이 무산 돼왔던 호남권 첫 코스트코는 익산시민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 주민의 오랜 소망이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그렇기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등 피해 발생 예상 업종을 파악해 구체적인 최적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스트코 측이 작성하는 지역 협력 계획서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이제 막 물꼬를 뒀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코스트코 입점 이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 상인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골목상권 침체 우려에 대해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점의 주요 이용층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뚜렷하게 다르다”면서 “소형 마트나 동네 슈퍼를 주로 찾는 주민들과 차량 이용 중심의 대량 구매 소비자는 소비 성향부터 구매 주기까지 확연히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여행

전북 장수 누리파크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장수누리파크 | 063-352-5660

NAVER